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5.12.(제 13호)

초등 방과후 돌봄제공 기관 간 협력 실태 및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2023)

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연구(2022)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안 연구(2022)

돌봄민주주의와 서울시 돌봄정책(III):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대 방안(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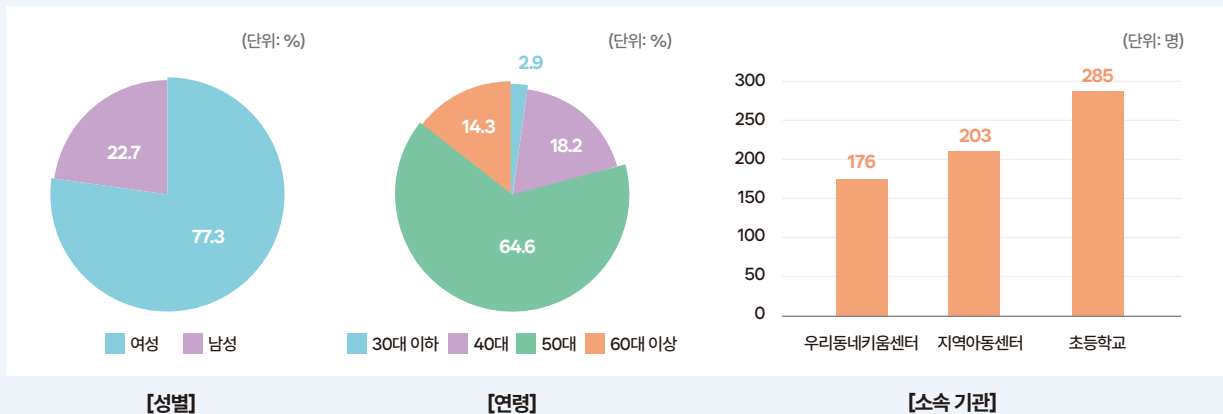
돌봄민주주의와 서울시 돌봄정책(II):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2021)

정부는 2025년 9월 국정발표를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방향을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의 마련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지역사회가 초등 방과후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즉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이다.

서울시 지역사회 대표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기관의 협력 상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유형의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비율과 협력 수준은 높았으나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와의 협력도 미흡했으나, 향후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기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신체활동’, ‘사회정서역량’ 영역에서의 협력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전인적 역량 형성을 위해서도 초등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는 중요하다(송이은, 202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돌봄에서 초등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 초등 방과후 돌봄제공 기관 설문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지역사회 돌봄 기관 시설장 379명, 초등학교 관계자(교장/교감) 285명
-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 조사 기간: 2025년 8월 21일~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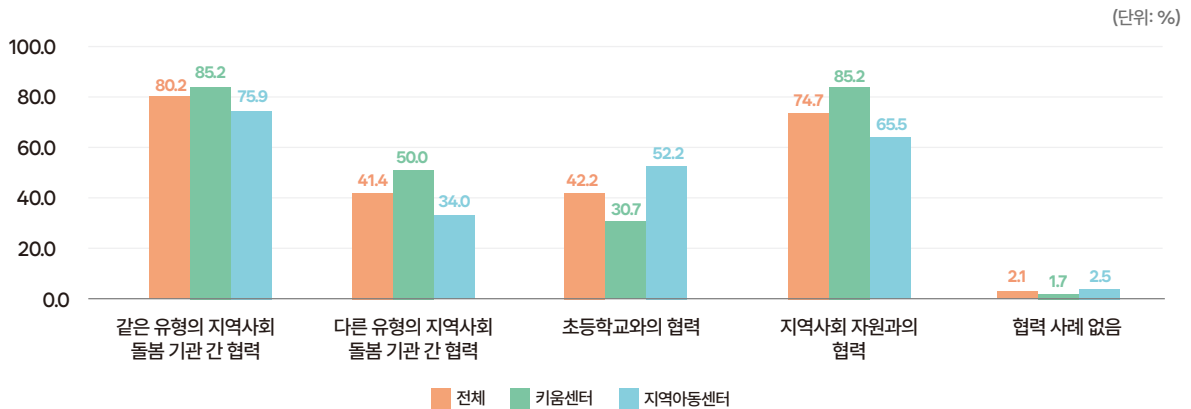


*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5년에 수행한 「지역사회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개선 방안 연구」(류임량·장은주, 2025)의 연구 결과 일부 요약 자료임.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기관의 협력 현황

○ 유관 기관과의 협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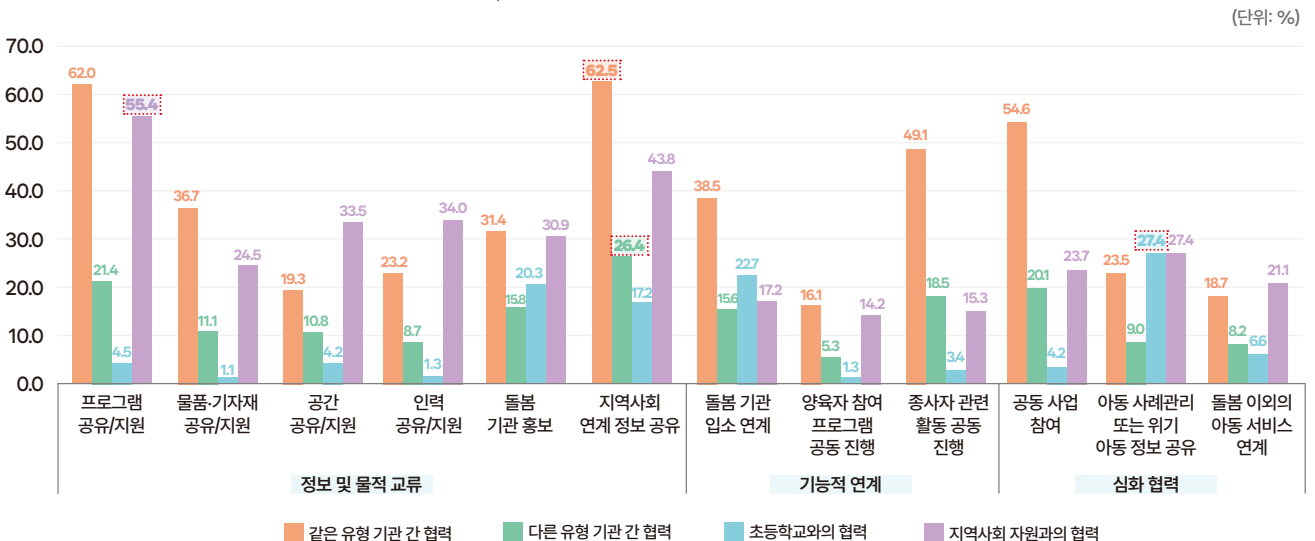
- 돌봄 기관의 협력 비율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같은 유형의 기관 간 협력(키움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비율이 전체의 80.2%로 가장 높았음. 지역사회 자원(도서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관 등)과의 협력 비율도 74.7%로 높게 나타남. 반면 다른 유형의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의 협력(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참여 비율은 41.4%로 같은 유형과의 협력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었고, 초등학교와의 협력 참여도 42.2%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키움센터가 초등학교 협력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협력 비율이 지역아동센터보다 높았음.



[그림 11] 유관 기관과의 협력 유형별 비율(중복응답)

○ 유관 기관과의 협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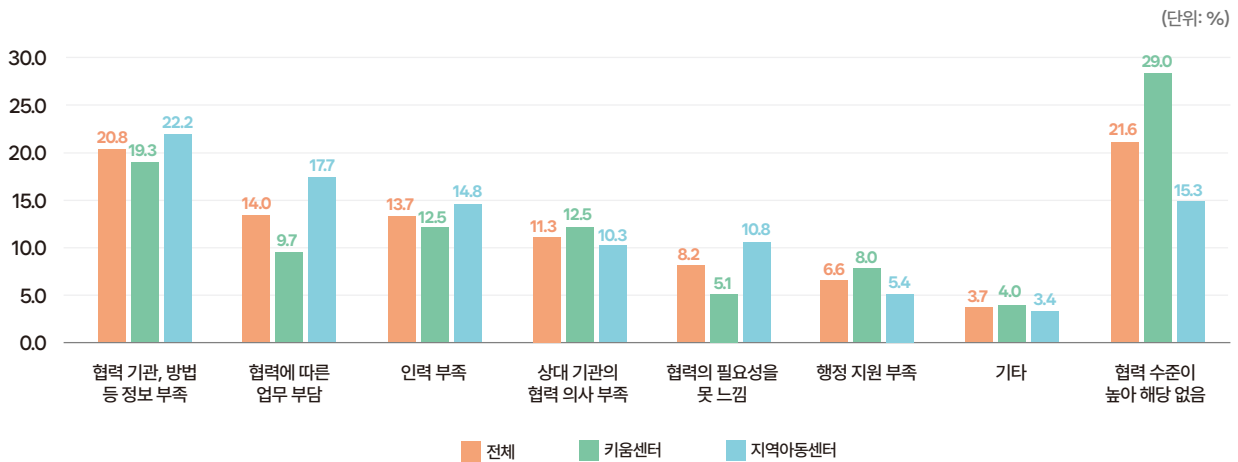
- 협력 내용은 정보 및 물적 교류(프로그램이나 공간 공유 등) 뿐만 아니라, 기능적 연계(기관 입소 연계, 프로그램 공동 진행 등), 심화 협력(공동 사업 참여, 아동 사례관리 등) 수준을 포함하여 파악하였음.
- 돌봄 기관과의 협력 내용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 연계 정보 공유'로 나타났음. 같은 유형의 기관 간 협력 비율은 조사 대상의 62.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유형 기관 간 비율은 26.4%로 낮았음.
- 학교와의 협력에서는 '아동 사례관리 또는 위기 아동 정보 공유'가 가장 비율이 높았음. 학교와 심화된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돌봄 기관의 27.4%에 불과했음.
-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내용은 프로그램 공유/지원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음.



[그림 21] 유관 기관과의 협력 내용(중복응답)

○ 돌봄 기관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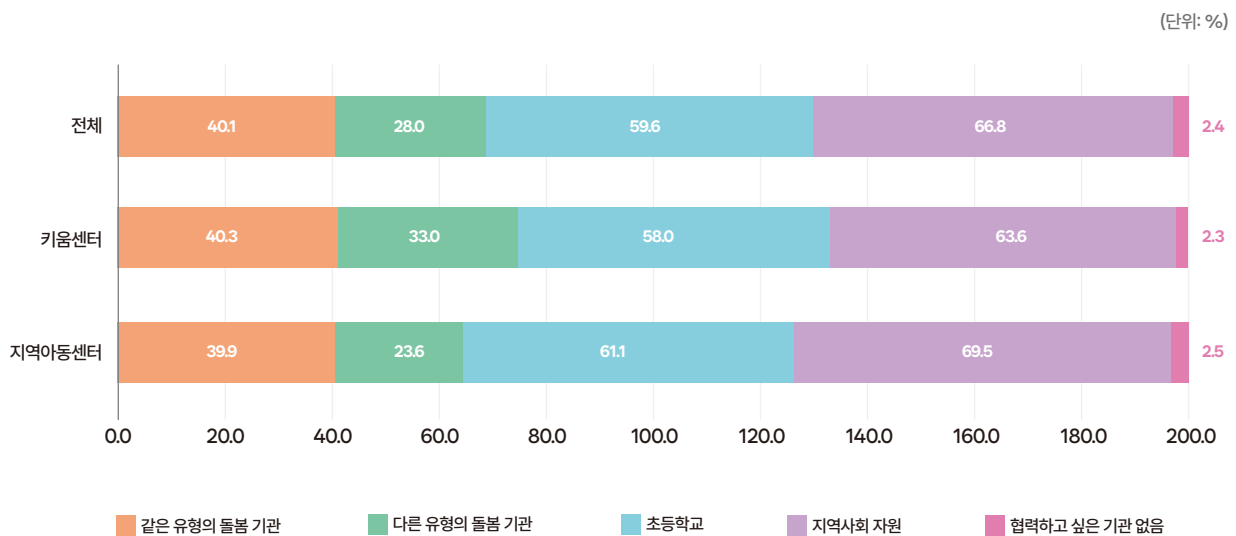
- 지역사회 돌봄 기관은 협력이 부재 또는 미흡한 이유로 ‘협력할 기관이나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20.8%로 가장 높았고, ‘협력에 따른 업무 부담(책임 소재 등)’ 14.0%, ‘인력 부족’ 13.7%, ‘상대 기관의 협력 의사 부족’ 11.3% 등으로 나타남.
- 유관 기관과의 협력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역할 분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그림 3]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부재 또는 미흡한 이유

○ 돌봄 기관이 향후 협력하고 싶은 기관

- 지역사회 돌봄 기관에서 향후 협력하고 싶은 기관은 ‘지역사회 자원(도서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관 등)’이 66.8%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59.6% 순이었음. 같은 유형과의 협력이 40.1%로 낮은 것은 협력 비율이 이미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반면, 다른 유형과의 협력은 현재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향후 의사도 낮았음. 다른 유형 기관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여 협력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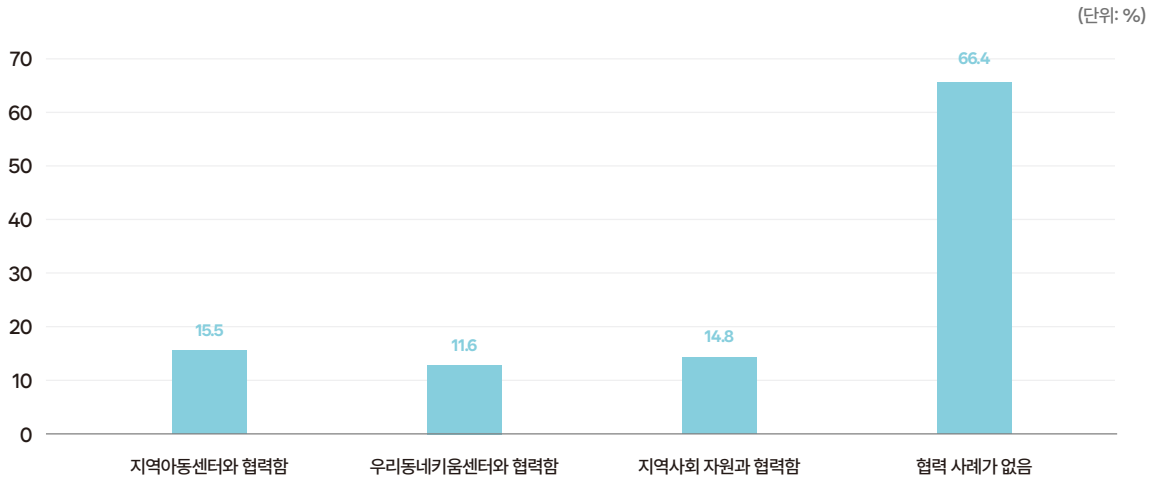


[그림 4] 향후 협력하고 싶은 기관(중복응답)

서울시 초등학교의 협력 현황

○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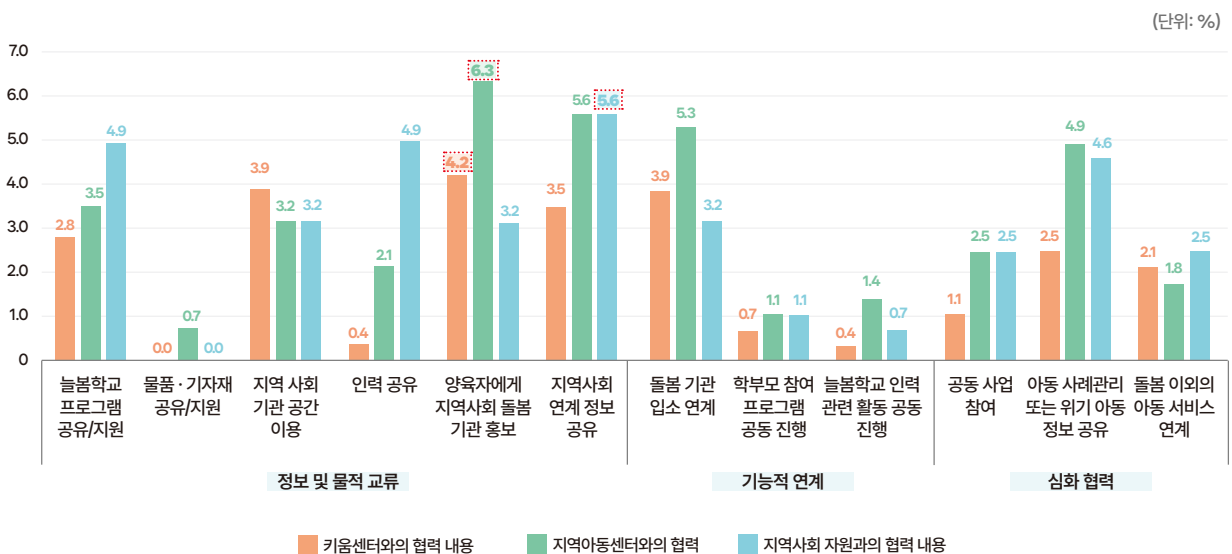
- 초등학교에서 지역사회 기관과 수행하는 협력을 파악한 결과 전체 학교 중 15.5%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자원(도서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관 등) 14.8%, 우리동네키움센터 11.6%로 나타남.
- 유관 기관과 협력하지 않는 사례는 전체의 66.4%로 높게 나타났음.



| 그림 5 | 초등학교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 비율(중복응답)

○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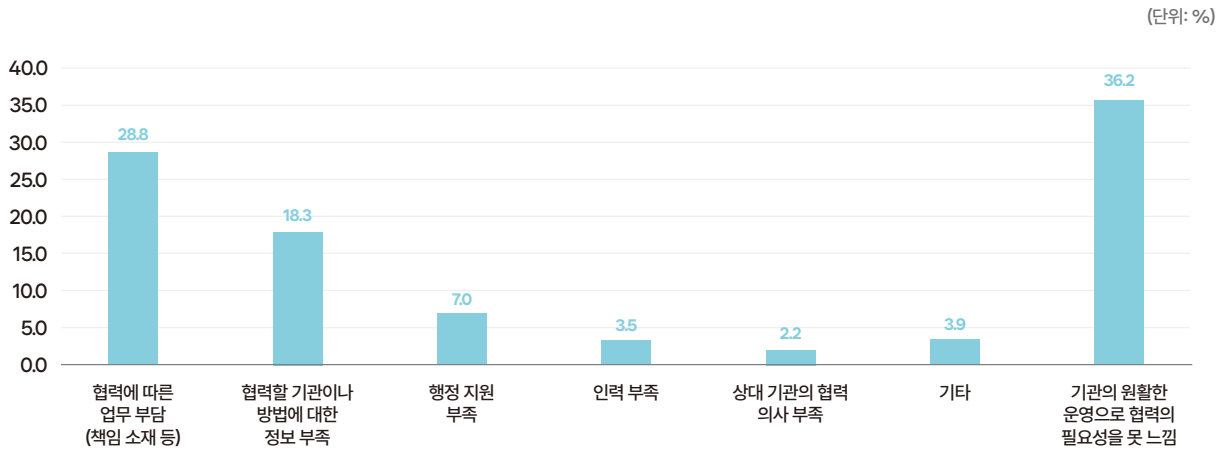
- 초등학교가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양육자에게 지역사회 돌봄 기관 홍보'였고, 지역사회 자원과는 '지역사회 연계 정보 공유'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각 협력 내용의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일부 초등학교만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었음.



| 그림 6 | 초등학교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 내용(중복응답)

○ 초등학교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이유

-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협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이유로 ‘기관의 원활한 운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못 느낌’을 응답한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협력에 따른 업무 부담’, ‘협력할 기관이나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역사회 돌봄 기관의 응답과 상이한 결과임. 특히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력 시 책임을 경감하는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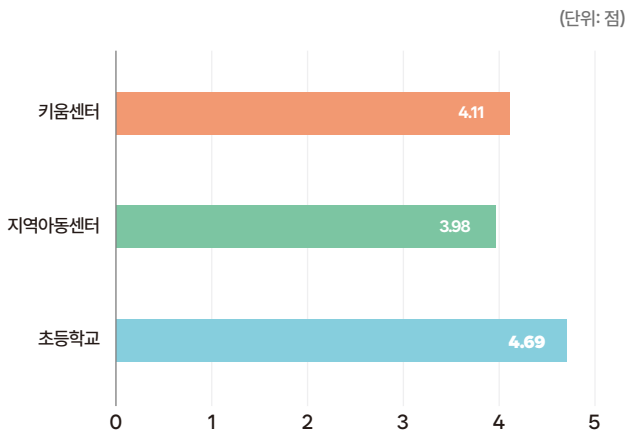


[그림 7] 다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부재 또는 미흡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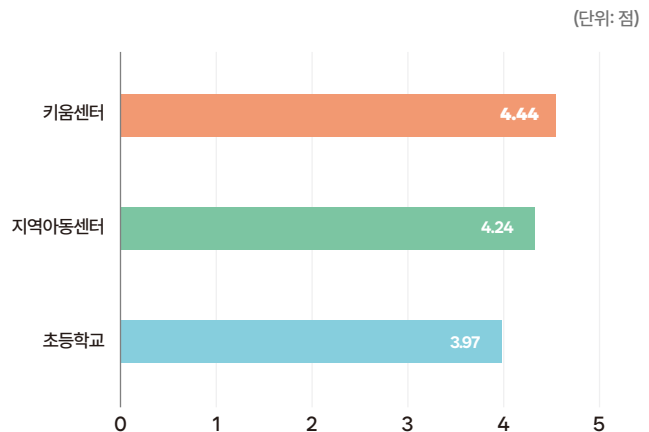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초등학교의 향후 협력 방향

○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지역사회 돌봄 기관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 방과후 돌봄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돌봄 기관 및 학교 관계자 모두 5점 척도 기준 4점 내외로 높았음.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방향에 초등 돌봄 현장도 동의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 ‘아동이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도 돌봄 기관과 학교 점수 모두 높았음.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초등학교 간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임.



[그림 8] 지역사회 돌봄 기관의 방과후 돌봄 주도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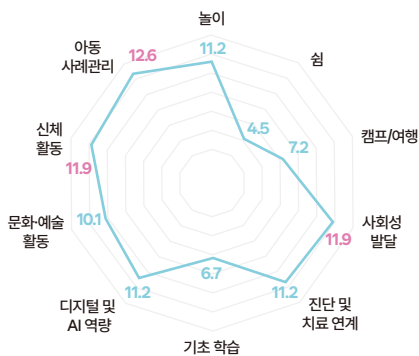


[그림 9] 돌봄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 강화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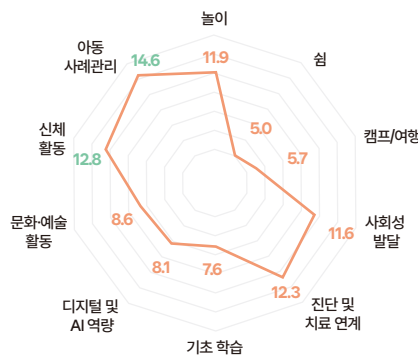
○ 지역사회 돌봄기관과 초등학교가 협력하고 싶은 돌봄 영역

- 향후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초등학교에서 협력하고 싶은 돌봄 영역을 파악함. 돌봄 영역은 놀이와 쉼(놀이, 쉼, 캠프/여행), 사회정서(사회성 발달, 진단 및 치료 연계), 아동역량(기초 학습, 디지털 및 AI 역량, 문화·예술 활동, 신체활동), 복지(아동 사례관리)의 영역으로 살펴봄.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학교 모두 가장 협력하고 싶은 영역은 아동 사례관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키움센터는 사회성 발달과 신체활동, 지역아동센터는 신체활동, 초등학교는 사회성 발달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돌봄기관과 초등학교에서의 협력 희망 영역이 유사하게 나타나 ‘위기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회정서역량’, ‘신체활동’ 영역 중심으로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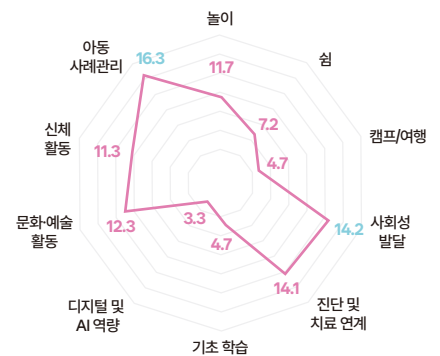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10 | 키움센터에서 협력하고 싶은 돌봄 영역(중복응답)



| 그림 11 | 지역아동센터에서 협력하고 싶은 돌봄 영역(중복응답)



| 그림 12 | 초등학교에서 협력하고 싶은 돌봄 영역(중복응답)

정책 시사점

○ 초등 방과후 돌봄제공 기관 간 협력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지역사회 돌봄 기관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 대상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음. 같은 유형의 돌봄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은 활발한 반면, 다른 유형의 돌봄 기관 및 학교와는 그렇지 않았음. 또한, 초등학교가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돌봄 기관의 경우 협력 기관이나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협력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중요하게 응답하였으나, 학교는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에 따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지역사회 중심으로 양질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협력 주체 강화와 역할 분담, 공동의 협력 목표 설정,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협력 주체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점검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돌봄 제공 주체에게 다양한 협력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돌봄 기관 및 초등학교 간 협력 강화 지원

- 돌봄 기관과 초등학교 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예를 들어 돌봄 기관과 초등학교 돌봄 종사자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종사자 공동 교육 실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학교 중심의 아동 사례관리 체계에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제안함.

연구자: 류임량(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참고문헌

송이은. (2025). “미래역량에 주목하는 아동돌봄의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정책리뷰』 2025. 7.(제6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